

# ‘다양한 얼굴, 하나의 우리’...예술로 만나는 문화다양성

### 광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내일 광주시청 로비

서로 다른 얼굴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다양성 체험 행사가 광주 도심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2026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얼굴, 하나의 우리’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재단을 비롯해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지역 기관·단체 10곳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 공동 프로그램인 ‘다양한 얼굴, 하나의 우리’는 시민들이 다양한 얼굴과 표정을 그린 뒤 대형 탭 형태 조형물에 부착하는 시민 참여형 체험이다.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쉽고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광주시민방송은 시민들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돼보는 ‘문화다양성 라디오’를 운영하며, 유니버설문화원은 동남·남아시아 악기 체험과 보드 프로그램 ‘아시아 미스테이프’를 선보인다.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두불로 시작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지금 여기!’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의 의미를 전하고, ㈜어둠속의 빛은 안대를 착용한 채 글쓰기를 체험하는 ‘어둠 속 이야기-암흑체험’을 진행한다.

광주독립영화관은 VHS 비디오와 카세트테이프 작동 체험 프로그램 ‘Mo’ Better Cinema, Mo’ Better Life (모 베택터 시네마, 모 베택터 라이프)’를 운영한다.

광주북구가족센터는 세계 전통의상 슈링클스 만들기과 국기 우드카링 제작 체험으로 꾸며진 ‘지구촌 어울림 한마당’을 선보인다.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조사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문화 복식 창작 체험과 악기 체험, 인도네시아 전

### 함께 만드는 대형 탭부터 안대 쓰고 글쓰기까지 지역 기관·단체 10곳 특색 살린 콘텐츠 ‘다채’

통 공예 문양의 바틱 찍기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광주이주여성연합회는 해나 체험과 전통 놀이, 아시아 각국 의상 체험이 가능한 포토존을 운영하며, 인권지기 활 짝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 체험과 혐오·차별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행사 당일에는 광주시민의 날과 광주 세계인의 날 행사도 함께 열려 현장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기다리 피어로의 풍선아트와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재단은 올해 행사를 ESG 실천의 하나로 ‘쓰레기 없는 행사’ 형태로 운영한다. 현수막과 리플렛 대신 웹포스터와 카드뉴스를 활용하며, 관련 정보는 재단 누리집과 SNS를 통해 제공한다. 또 행사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수어통역 서비스도 운영 예정이다.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지난해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 빛의 원리로 완성하는 한 컷

### 국립광주과학관 특별전 ‘인생샷 연구소’ 개최 내달 14일까지 사진 매개로 과학 개념 배워

사진 속 빛의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6월1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사진 특별전 ‘인생샷 연구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상 속 사진에 담긴 빛의 성질과 촬영 원리, 사진 기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동시에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한 융복합 전시다. 사진을 매개로 과학 개념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다.

전시는 ‘기초 광학 연구실’, ‘지능형 연구실’, ‘상상 스튜디오’로 구성됐다.

‘기초 광학 연구실’에서는 스펙트럼 분석과 색온도 실험을 통해 빛의 성질을 탐구하고, ‘지능형 연구실’에서는 인공지능(AI) 사진 복원 및 퍼스널 컬러 진단을 체험한다. ‘상상 스튜디오’에서는 회전목마와 픽셀 정형 등 다양한 포토존을 통해 이색 촬영을 즐긴다.

국립중앙과학관과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의 협조로 희귀 카메라 실물도 전시해 사진 기술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도 있다.

‘사진 창작자 데이’와 협업한 포토존에서는 일상을 특별한 장면으로 담아내는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관람객은 전시를 즐기며 자신만의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전시 전만에는 ESG 경영도 반영됐다. 기존 전시에서 사용한 가벽과 기자재를 재활용해 약 45톤의 탄소 배출을 줄였다.

한수민 전시기획실 선임연구원은 “사진 속 과학 원리를 배우면서 소중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가족이 함께 즐기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 〈제60강〉 15. 지산겸(지산겸) 상

역경의 열다섯 번째 괘는 지산겸(地山謙)이다. 겸은 겸손(謙遜)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도(道)이다. 과상을 보면 높이 솟아야 할 산이 땅 속에 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의미다. 귀신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복(福)을 주고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해(害)를 준다. 모든 것에 겸손하면 탈과 해가 없다. 또한 지산겸은 ‘낮추다, 낮추다’라는 뜻이다. 사람의 성품을 점해 겸겸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이다. 겸겸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아부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남의 앞에 나서서 일을 하지 않고 내면에 충실한 역량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사전(繫辭傳)에서는 이를 ‘겸덕(謙德)이라 한다.

지산겸(地山謙)	謙, 亨, 君子有終	卦象
	鳴謙, 利用行師 征邑國	地中有山之謙
	不富 以其鄰, 利用侵伐 无不利	登山平安之象
	无不利 孤謙	
	勞謙君子, 有終 吉	仰高取下之象
	鳴謙, 貞吉	
	謙謙君子, 用涉大川 吉	稱物平施之意

열 번째 괘인 천택이(天澤履)에서는 ‘예의(禮儀)를 덕의 기본으로 했으나, 겸겸에서는 겸은 덕(德)의 줄기(幹)라고 하고 이를 ‘겸존광야(謙尊光也)’라고 한다.

겸겸을 만나면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늦추고 서서히 추진하면 진출의 기회가 오지만 급하게 당장 전진하면 필패(必敗)한다. 그러나 뇌수해(雷水解)괘를 만나면 빨리(夙) 추진해야 한다.

겸겸의 상하괘의 관계를 살펴보면, 겸겸은 음(陰)으로만 구성된 집단에 삼효만이 유일한 양(陽)이다. 구삼(九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랫사람이나 상층부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 오만해지기 쉽다. 그러나 실제 구삼의 위치는 하층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상층부에 진입해 있지 않는데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망각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면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배척당한다. 그래서 겸겸하고 또 겸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겸겸(謙謙)라 했다. 즉 구삼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나 욕이, 욕사가 아니어서 실권이 없으니 겸겸하지 않으면 실권자들에게 제거되고 만다. 마치 조선 초의 남이장군과 같은 처지다.

상하괘의 상을 보면, 땅 속에 산이 있어 지중유산지과(地中

## “겸 형, 군자유종”

유(山)의 산이 오르면 평지가 나오니 등산평안지상(登山平安之象)이고, 겸손한 자세로 높은 곳을 우러러 보면 아래를 취할 수 있으니 앙고취하지상(仰高取下之象)이며, 겸양의 순수함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남을 먼저 예우하고 고루 배풀게 되니 칭물평시지(稱物平施之意)의 상이다.

겸겸을 대유괘 다음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서괘전(序卦傳)에서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히 가득 채우지 못한다. 고로 겸겸으로 이어 받는다’(大有者 不可以盈 故 受之以謙)고 말한다. 대유괘는 크게 영화롭고 부유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유함은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바, 부유함으로써 재앙을 초래하지 않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겸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훈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산겸괘(謙卦)의 괘사(卦辭)는 ‘겸 형, 군자유종(謙亨, 君子有終)이다. 즉 겸은 형통하니 군자가 오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겸(謙)은 자기를 낮추는 일이지만 이를 실행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보다 못한 사람 밑에 있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게 실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보통사람은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다. 오직 진정한 군자만이 겸도(謙道)를 지켜 형통할 수 있고 군자의 끝을 완성해 길을 얻을 수 있는 덕목이기 때문에 ‘겸, 형 군자유종(謙亨 君子有終)이라 했다.

겸의 도에 대해 단전(象傳)에서 ‘하늘의 도는 아래를 가지런히 해 광명하게 하고 땅의 도는 낮춰 위로 올라가며, 하늘은 가득찬 것을 싫어해 겸손을 돕고 땅도 가득찬 것을 변화시켜 겸손하게 한다. 귀신도 가득찬 것을 해롭게 해 겸손한 것에 복을 주고 사람도 가득찬 것을 나쁘게 하며 겸손한 것을 좋아하는다. 겸손을 우러러 보면 빛이 나고 자신을 낮추면 밭짐을 당하는 일이 없어 겸손이 군자의 마침’이라고 해 ‘겸형 천도하제 이광명 지도비이상행 천도휴영이익겸 지도변영이류겸 귀신해영이복겸 인도악이호겸 겸존이광 비이불가유 군자유종야(謙亨, 天道下濟而光明 地道卑而上行 天道虧盈而益謙 地道變盈而流謙 鬼神害盈而福謙 人道惡盈而好謙 謙尊而光 卑而不可踰 君子之終也)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전(象傳)에서 ‘땅 밑 가운데에 산이 있는 것이 겸이니 군자는 많은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더하고 만물을 저울에 달아 만물이 평등해지도록 배분’다고 해 ‘지중유산 겸, 군자이부다익과 칭물평시(地中有山 謙, 君子以裒多益寡 稱物平施)라 한다.

겸겸은 인륜의 살아가는 도리를 말하고 있어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장사 등에서 겸겸을 얻으면 좋지 않다. 겸겸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낮추라고 하는데 장사할 때는 이익을 취해야 하는 것이므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점사에서 득괘해 겸괘(※각주=상할(象曰), 땅 속에 산이 있으니 겸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많은 것을 덜어내어 적은 것을 채우니 재물을 덜어 고루 배분다(地中有山 謙, 君子以裒多益寡 稱物平施). 겸겸은 태공오세로 가는 구월에 속한다(兌宮五世卦 風九月). 남갑은 丙辰, 丙午, 丙申, 癸丑, 癸亥, 癸酉이고 차용은 乙丑, 乙亥, 乙酉이다. 구월 및 남갑에 생한 자는 공명 부귀인이 된다(生於九月及納甲者 功名富貴人也)를 얻으면, 모든 일에 있어 쓸데없는 참견을 주의해야 하고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물러나는 편이 좋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진출의 기회가 오지만 급하게 당장 전진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처음에는 만사가 뒤뚱리고 순조롭지 못해 자신의 선택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망설임이 있으나 이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니 오류이 한길로 나아가야 한다.

오직 겸겸과 겸겸의 마음가짐으로 유화(柔化)하게 사람들과 교류하면 신뢰와 발탁이 있다. 겸겸의 미덕만이 살길이다. 현재는 높은 데에서 내려와 땅 아래로 잠겨 있는 상이니 영화로운 사람 또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낮은 곳에 떨어져서 누추한 곳에 있지만, 겸겸의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면 만회(挽回)의 기회가 온다.

겸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운이생괘법으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역이생괘(易位生卦)로 겸겸의 상하괘를 서로 그대로 위치를 바꿔보는 법으로 산지박에서 지산겸이 왔다고 보는 견해다.

둘째는 순음(純陰)의 곤(坤) 안에 일양(一陽)이 끼어들어 겸겸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마세주수(眞勢中州)※(※각주=일본의 역점(易占)명인. 그의 역의 이론을 마세역이라고 부른다)의 래징생괘법(來徵生卦法)의 견해다.

역이생괘법(易位生卦法)	래징생괘법(來徵生卦法)
산지박 지산겸	곤위지 지산겸

셋째는 효의 운이(運移)로 산지박의 상구가 오효로 옮겨 수지박이 되고 사효로 옮겨 뇌지박이 되고 그리해 초효까지

옮겨와 지리박이 되는 운이생괘법이고 이와 반대로 지리박에서 지수사, 지산겸으로 점점 상효로 올라가 산지박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의 운기는 쇠하지만 점점 상승해 영화로워져 신용도 더해간다고 판단하는 것은 겸의 뜻과 함께 이 효가 운이해 뇌지에 가고 수지박이 되는 기세라고 판단한 것이다.

운이생괘(運移生卦)					
산지박	수지박	뇌지박	지산겸	지수사	지리박

운세 판단에 있어 사업, 거래, 지방 등은 급진하면 실패하고 나아가려면 순서를 밟아 천천히 시도해야 하며 자신이 표면에서 나서는 말고 남을 따라가는 편이 유리하다. 혼인은 인물은 좋고 지금보다는 점차 잘 돼가며 임태는 좋은 시기로서 예정보다 늦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가출인, 분실물 등은 소식이 없고 나타나지 않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겸양의 미덕으로 때를 기다려야 하고 서두르면 백사불리(百事不利)하다. 병은 곤중(坤中)에 일양(一陽)이 막힌 상이니 식도나 위가 막히거나 식독, 설사, 구도가 있고, 남자 나신(裸身)의 상으로 성병으로 인한 고름, 피가 나온다.

지산겸괘 앞의 화천대유괘의 대유(大有)는 ‘크게 가지다. 큰 것을 보유하다’는 뜻으로 위치가 높고 올라 나간다는 길(吉)의 뜻이 강하나, 지산겸의 겸괘(謙卦)는 ‘겸손하게 밀으려 내려간다는 뜻으로 효위(爻位)가 낮으면 낮을수록 겸겸하고, 효위가 높아 높아질수록 겸겸의 의미가 더해진다. 따라서 겸겸에서는 대유괘와 반대로 효위가 낮을수록 겸겸하고 길(吉)의 의미가 강해진다.

서경에는 가득하면 다투는 부르고, 겸겸하면 더함을 받는다 고해 ‘만초손 겸수익(滿招損謙受益)이라는 경구가 있다.

겸겸의 특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겸한 미덕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다른 괘와 달리 부정적인 흉(凶), 구(咎)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겸겸의 미덕은 진리이다.

‘실점(退溪)로 퇴계(退溪)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날 병점을 서(筮)해 ‘겸괘(謙卦) 무동(無動)을 얻고 다음 날 돌아가셨다. 겸겸은 흠오로만 이뤄져 있으니 만물은 태어나서 결국 간토(艮土)로 돌아간 것이다.

###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기양생

